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된다’라는 말이 있다.

사리분별 못하는 사주조합, 선 넘지 마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실 공사로 한 동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다. 입주자대표가 시공사에 부실시공을 따져 물었고, 관할 구청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청했다. 그러자 옆 동 주민이 나서서 얘기한다.

아파트 값 떨어져요. 이 사고가 밖으로 퍼지면, 우리 단지 전체가 손해입니다. 우리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언제 무너져 죽을지 모르는데, 집 값 떨어지는 것을 먼저 걱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앞에서 사주조합은 만도 주식 떨어질 걱정을 한다. 정말 참담하다.

■ 우리사주조합 직무대행, 정몽원 회장에게 따져라.

세상이 온통 HL만도의 중대재해로 떠들썩하다. 사람이 죽었고, 노동조합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년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우리사주조합 직무대행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노동조합을 향해 손가락질하는가?

사주조합은 직무대행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아니면 사측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것인가? 국민연금만도의 2대 주주다. 회사의 안전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주주의 당연한 권리다.

그렇다면 우리사주조합도 주주 아닌가? 정말 주주가치가 걱정된다면 묻는다. 지금까지 정몽원 회장과 경영진에게 주주가치를 위해 무엇을 요구했는가? 조합원에게 주식 수를 더 늘려달라고 무상분배를 요구했나? 주가가 떨어질 때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은 적은 있는가? 없다면 지금 노동조합에게 이럴 때가 아니다.

- 2026년 06월 1일 기준 HL만도 주식 보유 순위 -

1위 : HL홀딩스 외 특수관계인(약 30.2%) 2위 : 국민연금공단(약 10.6% ~ 12.8% 변동)

3위 : 우리사주조합 (약 1.4%, 64만 주 이상)

정회장의 보유 주식은 3,310주 약 0.01%, 사주조합은 64만주 약 1.4%를 보유하고 있다. 사주조합이 정회장보다 더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사주조합이 주주가치를 걱정한다면 국민연금처럼 정회장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않는 사주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HL홀딩스 보유, HL만도 30.25% ... JD테크 33.33%

정몽원 회장은 HL홀딩스를 통해 만도를 지배하고 있다. HL홀딩스는 평택공장 협력업체인 JD테크 지분도 33.33%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정몽원 회장 입장에서 HL만도와 JD테크는 모두 자신의 지배구조 안에 있는 회사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니 책임을 묻는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데 회사가 나섰고, 이제는 우리사주조합까지 회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회장의 한마디가 법이 되는 HL그룹, 오늘도 ‘정몽원’ 이름 석자를 지키기 위해 안절부절이다. 우연인가?

지난 8/26일, 한국경제는 만도 조합원의 제보라며, 사측 주장을 인용한 기사를 내보냈다. “중대재해 발생하자 성과급 15% 요구한 노조, 중대재해 불모로...” 그러나 사실은 명확하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15%를 결정한 것은 7/1일 임시대의원대회였고, 사측에게 7/7일 전달됐다. 중대재해는 7/22일 발생했다. 이처럼 빠른 사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누구일까?

☐ **금속노조가 국민연금에 요구한 것은 안전조치 확인이었다.**

23년 미국 조지아 사망사고에 이어 평택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니, 과거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경영진과 이사회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감독했는지 확인해 달라. 문제가 되면 향후 이사 선임 등 2대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였다.

공문 내용 어디에도 주식을 팔아달라. 회사를 망하게 해달라. 주가를 떨어뜨려 달라고 하지 않았다. 사측이 9/9일, 만도지부에 보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건'이란 공문에도 수탁자 책임활동을 ‘일방적 요구’로 규정했다. 이번 사주조합 홍보물 내용도 국민연금에 안전조치를 요구한 것이 회사의 가치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 공문 내용과 판박이다.

노동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경고한다. 주주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영진에게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고 따져라.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

2026년 09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